연예뉴스 스테이션

현빈 소속사 "휴가는 9박10일…특혜 아니다"



해병대 복무 중인 현빈(사진)이 자신의 100일 휴가 일수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다.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빈의 100일 휴가 일수는 알려진 것과 달리 9박10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병대 100일 휴가 일수인 5박6일에, 최근 해병대에 벌어진 여러 일들로 휴가 일이 미뤄지며 받아놓은 다른 휴가까지 붙여 9박10일간의 휴가를 나왔다"고 설명했다. 3월 해병대에 입대해 현재 백령도에서 복무 중인 현빈은 27일 밤 100일 휴가를 나왔다. 현빈은 휴가 기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KBS제주 "제작진이 출연 취소"…JYJ "납득 못해"

KBS제주방송총국의 '도전! 세계7대자연경관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작진은 28일 오후 KBS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JYJ 출연 취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JYJ는 제작진의 판단으로 출연이 취소됐다"며 "그 이유는 기획 단계부터 섭외를 추진했던 소녀시대, f(x) 측으로부터 스케줄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7월15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유럽까지 진출한 소녀시대, f(x)의 출연이 프로그램 의도와 잘 맞았기 때문에 JYJ측에 취소를 알리고 사과했으며, 양해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JYJ 측은 "KBS제주측이 출연이 왜 갑작스레 취소됐느냐에 대한 해명 대신 아티스트 간의 경쟁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며 "공정거리위원회 제소와 법정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반발했다.

조인성, CF촬영 갔다 히말라야 기상악화로 발 묶여

조인성이 광고 촬영을 위해 찾은 히말라야에서 기상악화로 이틀째 현지에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성은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 광고 촬영을 위해 네팔로 갔다. 당초 일정은 27일 귀국이지만 현지 기상악화로 인해 촬영지에서 이틀째 하산하지 못하고 있다.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기상이 나빠 이틀 동안 광고 촬영팀을 태울 헬기가 뜨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와 연락을 취한 결과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기상이 회복되면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기생뎐' 임수향, 송중기와 피자 광고



신예스타 임수향(사진)이 송중기와 피자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이달 초 종영한 SBS 드라마 '신기생뎐'으로 얼굴을 알린 임수향이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의 새로운 모델로 나섰다. 임수향은 기존 광고모델인 송중기와 최근 CF촬영을 마쳤다. 피자에땅 관계자는 "CF에서 임수향은 20대 초반의 풋풋한 매력을 앞세워 귀여운 모습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카라 한승연, SBS 'TV 동물농장' 새 MC

걸 그룹 카라의 한승연이 SBS 'TV 동물농장' 진행자로 나선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29일 "한승연이 평소 강아지와 고슴도치를 키울 정도로 동물 사랑이 각별해 프로그램 진행자 제안을 받고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TV동물농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승연은 첫 촬영 때 자정이 넘은 시각에 부상당한 새끼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꼬박 밤을 새며 구조 작업을 펼쳤다.

선우용여, 데뷔 46년만에 첫 토크쇼 진행

선우용여가 BTN불교TV의 토크쇼 '선우용여의 스님 뵙고 싶었어요'진행을 맡았다. BTN불교TV는 29일 "선우용여의 진행자 도전은 데뷔 46년 만에 처음"이라며 "선우용여는 대표적인 불자 연예인으로 그동안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푸근한 이미지가 프로그램과 잘 맞아 떨어져 MC를 맡겼다"라고 밝혔다.

윤여정,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

배우 윤여정이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윤여정은 8월11일부터 16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고 경쟁부문에 출품된 여덟 편 가운데 대상과 심사위원특별상을 각각 선정한다. 제천국제영화제가 경쟁부문에 심사위원장을 위촉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동영상 랭킹

7월 3주, 자료:네이트 판

1위 영상 정보보기

순위	동영상	조회수
1	한번만 안아줘 [ENDING MAKING]	280,686
2	해운대 티저 大공개-만든이 부른이:케이준…	254,343
3	가야금연주 고백송 ♥	228,359
4	너굴맨 HOTSUMMER 너굴맨 핫써머 안무…	238,017
5	[MV]해운대-케이준(Kjun a.k.a Get the ride)	205,097
6	[최초공개] BoM 니가없이 뮤비1분 영상	195,670
7	':.케이준의 해운대.:'	178,294
8	감동 고백송 ♡	181,683
9	[최초공개/HD] 인피니트 "내꺼하자"!…	166,408
10	인피니트, 내꺼하자 티저! 100만 조회…	159,924



서로 다른 색깔을 지녔지만 뿜어내는 화음은 한여름 별미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에이트의 이현과 2AM의 창민(왼쪽부터)이 1년 만에 '옴므'의 이름으로 뭉쳤다. 사진제공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름을 평정하러 돌아왔습니다."

2AM의 창민과 에이트의 이현이 1년 만에 다시 뭉쳤다. 이번에도 '옴므'라는 이름으로 활동에 나섰다.

'옴므'는 작곡가 방시혁의 시그너처 프로젝트다. 지난해 이들은 7월 첫 작품으로 '밥만 잘먹더라'를 발표해 뭇 남성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밥만 잘먹더라'가 그렇게 잘 될지 몰랐다. (방)시혁이 형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난 왠지 좀 불안했었다. 그런데 너무 잘 됐다. 이번엔 내가 먼저 시혁이 형에게 '옴므 또 안하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다렸다."(창민)

이현과 창민 모두 원 소속팀인 2AM과 에이트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젝트 그룹 옴므의 활동 덕분에 남성 팬까지 크게 늘어났고, 활동반경도 넓어졌다.

"옴므를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솔로 음반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속한 팀인 에이트도 더욱 알릴 수 있었다. 함께 해준 창민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이현)

"2AM에서는 맏형 노릇 하느라 힘들어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옴므에서는 반대로 내가 동생이니까 투덜거릴 수 있고 기댈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옴므를 통해 평소 좋아했던 흑인음악, 펑키, 컨트리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옴므는 1년에 한번 외식하는 느낌이랄까. 옴므 활동을 하고 나면 그래서 2AM에 더 집중할 수 있다."(창민)

신곡 '남자니까 웃는거야'는 대중적인 미국 스타일의 록과 달콤한 신스팝이 혼합된 곡이다. 이현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창민의 섬세하면서도 시원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청량감을 준다.

"내 솔로곡 '내꺼 중에 최고'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과 비슷했다. 노래 내기 전에 자신감 갖기 힘든 일인데 굉장히 기대가 된다."(이현)

● "우리는 스포츠카와 SUV, 색깔 다른데 질투는 무슨…."

가창력이 뛰어난 두 보컬리스트가 듀엣하면서 은근한 경쟁심은 없을까.

창민은 "스포츠카와 SUV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 비교가 되겠는가"라며 "우리는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이현도 "창민이는 좀 가볍고 고음이지만 나는 좀 디테일한 감정표현을 한다. 각자 색깔이 있다"며 거들었다.

공교롭게도 옴므는 올해 같은 소속사 한 가족인 미쓰에이와 또 다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름 '밥만 잘먹더라'로 역시 같은 소속사인 미쓰에이의 '배드걸 굿걸'과 음원시장을 양분했다.

"사실 부담은 되지만 작년에도 보아, 아이유와 함께 활동하면서 '경쟁'에 신경이 좀 무뎌졌다. 내 곡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작아지고 그러진 않는다. 들을만한 노래 하나 더 생겨 좋다고 생각한다."(이현)

"'팀킬(Team kill) 아니냐'는 내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미쓰에이는 좋아하는 동생들이긴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질 수 없다. 내가 오빠니까. 하하.(창민)"

이현은 혼성그룹 쿨이 그랬던 것처럼 "옴므가 여름하면 생각나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우리 노래 듣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한다.(이현) 옴므를 이현과 창민으로 기억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생각나는 별미음식처럼, 여름이면 계절선물 받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창민)"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사진 | 양혁진 기자 yh@donga.com 트위터@e_joyful

스타, 그때의 오늘

1986년 '허튼소리' 김수용 감독 은퇴 선언

생전 숱한 기행으로 화제를 몰고다녔던 '걸레스님' 중광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최근 막을 올렸다.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전시회는 현실과 예술 사이를 오가며 숱한 번민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다 10여년 전 타계한 중광을 새롭게 떠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1986년 오늘, 중광의 삶을 다룬 영화 '허튼소리'의 연출자 김수용 감독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허튼소리'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둘러싼 격렬한 항의의 표시였다. '허튼소리'는 심의 과정에서 무려 10개 장면이 잘려나갔고 한 심의위원은 '한국영화는 누가 만들어도 별 수 없다'는 모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용 감독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영화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가 변화하지 않는 한 자신은 더 이상 영화를 연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때까지 30여년 동안 '안개' '갯마을' 등 100여편의 영화를 만들며 '명장'으로 불린 김수용 감독의 허망한 심정은 어땠을까.



중광의 삶을 다룬 영화 '허튼소리'를 촬영 중인 김수용(왼쪽)감독과 중광. 스포츠동아DB

'허튼소리'는 정동환과 이혜숙이 주연해 중광의 선시를 바탕으로 승려 출신 화가의 예술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번뇌를 그린 영화. 하지만 불교계 역시 그 내용과 관련해 당국에 상영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사는 일부 장면을 자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 그해 10월 9일 개봉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